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2시  
금요일예배 (1부) 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8월 18일 (제703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 만물을 상품으로 보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 저 구름을 팔아볼까?" 했더니, 그 사람 눈이 왕망 올만 해졌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얼굴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이봐, 그렇게 놀랄 것 없네. 저 구름을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을 팔면 저 구름을 파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는 또 사엽하는 성도들에게 '산소를 팔아보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다. 그러나 모두 내 말을 황당무계한 말로만 치부했다. 그러나 요즘 비행기를 타면 '워터 미스트'를 쥐서 얼굴에 뿌리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산소도 담아 팔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지 않을까. 조선후기의 사람인 봉이 김선달은 일찌감치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그런데 지금 김선달의 후손들이 설악산에서 나는 물, 제주 심층수 등 청정지역의 물을 팔고 있지 않은가. 또한 우크라이나 갔을 때 들은 얘인데, 이스라엘의 사해 밑에 있는 진흙이 마유에 좋다고 광고했더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한다. 돈 벌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자원이 고갈돼서 돈벌이가 없는 게 아니다. 남들이 전전해서 할 게 없는 게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이디어의 고갈이다. 아이디어란 곧 창조적인 생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란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깬 때 비로소 가능하다. 남들 다 하는 일로 승부를 낼 수 없다. 남들보다 빨라야 하고, 남들과 달라야 한다. 그러니 고착된 생각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다른 각도로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거꾸로도 보라.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평범한 사물이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상품으로 둔갑할 것이다. 만물은 다 상품이다.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라.

#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하리라"(마18:3). 총회장 목사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는 어떤 일이 생기면 경찰이나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엄마, 아빠만을 찾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떼를 써서라도 갖고야 한다. 또한 부모가 주

로 여름성경학교의 시작을 선포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여름미술학교, 여름컴퓨터학교, 여름수영학교, 여름한자학교 등 각종 여름학교의 홍보 글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술학교에서는 미술을 배우고, 컴퓨터학교에서는 컴퓨터를 배우며, 수영학교에서는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나의 특기를 뽐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조금 더 풍요를 누리며 살

또한 3살 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모두에게 영접기도를 시킴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을 분명히 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신앙을 고백하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실까? 진정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아닐까?



2013 여름성경캠프(인천 예수중심교회)

는 음식은 비타민 A, B, C가 들어있는지 따지지 않고 먹는 등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것이 어린아이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인천교회 유·초등부,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교회 유·초등부의 여름성경캠프가 인천 예수중심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진정 순수한 믿음을 가진, 천국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고3 수험생처럼 바쁘다. 방과 후 활동부대 시작하여 평일에 학원을 서너 군데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교육국 답임인 신종 목사는 '세상의 학문에도 힘써야겠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쓰길 바란다'는 메시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비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곳! 바로 여름성경캠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혜 있고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30살에 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 이들의 공통점은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 세상의 배움에 애썼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성경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힘쓸 뿐 아니라 2박3일 동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을 깨닫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세상 지식을 배우는데 애쓰느라 여름성경캠프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 또는 세상의 우수한 캠프들에는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주최하시는 여름성경캠프에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보내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한다. 우리의 미래는 차세대 교육에 달려있다. 그들이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가 달라진다. 여름성경캠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기도하고 변화하기를 갈망하는 어린 영혼들이 진정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유·초등부 전도사 박신애



아이들의 밝고 힘찬 모습에서 미래를 본다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신나는 물놀이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단6:1~28)

# 다른 것과 틀린 것은 판판이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 뜻이 애매모호하여 혼용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 서든 이 낱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오늘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사정'과 '부탁'입니다. 사정(事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간청하는 것'이고, 부탁(付託)은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정'이란 높은 사람에게 간청하는 것이고, '부탁'이란 믿을 만한 사람이나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교회 안에서 사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나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들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곧 주님의 일인데, 그것을 사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조시대에 왕에 관한 일을 아랫사람에게 시킬 때 사정했을 리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사정한다면 말이 됩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자에게 일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탁을 받은 자는 '황궁무지로 소이다' 해야 웁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 아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딤후2:2)고 했고, 많은 믿음의 선전들도 교회나 제자들에게 사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부탁만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도

## 못하는 것이나 안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교회 일은 사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회 때나 산상집회 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광고합니다. 부식이나 간식, 버스대여비 등 광고를 할 때 사정하지 않습니다. 들을 만한 자들에게 부탁할 뿐입니다. 구역 안에서도 '봉사해달라', '구역장 맡아 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길 만한 자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충분히 가르쳐왔습니다.

둘째, 차별과 구분입니다. '차별(差別)'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고, '구별(區別)'이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산상집회 때 어떤 사람이 제게 '사람 차별한다'고 말하더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호텔 사용문제 때문인데,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라 말해야 웁습니다. 규율 상 예약자만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어쩔까요? 구분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회가 끝나면 일반 숙소에도 에어컨 시설 다 해드릴 예정이니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땅끝예수전도회 회원의 초대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동행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러다 보니 테이블이 나눠져 있었는데, 제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

의 메뉴가 달랐습니다. 목사인 저를 좀 더 신경 쓴 거겠지요. 그런데 한창 식사를 하는 중에 저쪽 테이블에서 농담조의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인가?"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디를 가든 모든 사람과 동일한 대접을 원한다고 단에서 공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은 안 됩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실업인 선교회를 만들지 않는 것은 차별화할까 해서입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다른 교회에 다 있는 실업인 선교회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약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약2:1-9).

그러나 구분은 해야 합니다. 함께 일할 자와 도울 자를 구분하고, 문 밖에서 만나 할 사람과 거실까지 들어올

사람, 그리고 안방까지 들어올 사람은 구 분 해 야 합니다. 마 치 주

님이 변화산 상에서와 겹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회당장인 아이로의 딸을 살릴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틀린 것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 틀리면 바로 잡아야 하지만, 다르면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처음 갔을 때, 원주민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가슴을 드러내고 춤을 추던 원주민 처녀들을 보고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단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왜냐?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리와 다르다며 '틀렸다', '이단이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저와 그들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본

문의 다니엘도 다른 자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삼십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명령에 수긍했지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권불심년

## 차별은 말되 구분은 하라

(權不十年)이란 말을 무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다 다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는 틀립니다.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기에 틀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타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넷째, 못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다릅니다. 못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은 능력이 안 돼서, 행령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만, 안 하는 것은 능력이 뭇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그러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제라도 핑계와 변명을 버리고 모든 일에 도전해봅시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정과 부탁이 다르고, 차별과 구분이 다르며, 다른 것과 틀린 것은 판판이고, 못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의 일에 사정하지 말고 부탁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구별은 해야 하며,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임을 알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고, 당신의 삶이 치료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애통의 단계

욥은 인간이 겪기 힘든 어마어마한 환난을 순식간에 받은 사람이다.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과 사단 앞에서 자랑하시고 싶어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은 딱처운 환난에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더불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욥1:21). 그의 몸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재가운데 앉아 기와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 하겠느뇨”(욥2:10)라고 답하여 모든 환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후에 욥이서 3장부터 31장까지 그의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욥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욥이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후 욥은 세 명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말을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낸다. “나는 죄가 있어서 이런 일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다 헛된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싶다.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는 이유를.”

그러나 이러한 애통의 단계가 그를 점차 안정을 되찾게 하는 모습을 욥이서 23장에 가면 볼 수 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욥23:10).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며 그가 깨닫고 회개하여 정상을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 그 후로 4대까지 140년을 지내며 모든 복을 누렸다. 위대한 믿음의 선전 욥도 인간인으로 애통의 단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큰 환난을 겪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시험에 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애통의 단계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퍼붓던지, 울며 불며 다 풀어내던지 해서 애통의 단계를 거쳐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욥의 애통의 단계로 도와준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애통을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실컷 부르짖고 울고 나면 제법 안정을 되찾게 되고, 또 주님께서 긍휼이 여기셔서 평안을 되찾게 된다. 우리 주변에 애통의 단계가 필요한 사람, 혹은 애통의 단계에 몰입한 사람이 있으면, 애통의 단계를 격려하고 들어주고 함께해서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보람된 일일 것이다.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크고 작은 애통의 단계를 겪는 사람들을 미리 감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일들은 내게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필요한, 응어리를 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임을 알아두었으면 싶어서 이 글을 올린다.

이시대 목사

## 다투지 말라

그리스 신화 속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산길을 가고 있었다. 그 길은 굉장히 험소했다. 그런데 길을 가다보니 길 가운데 웬 물체가 하나 딱 가로 막고 있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길을 막고 있는 그 물체를 힘껏 짓밟았다. 그랬는데 그것이 갑자기 두 배로 커지는 것이 아닌가! 천하의 헤라클레스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가슴을 진정시킨 후에 헤라클레스는 가지고 있던 끈봉으로 그 물체를 내리쳤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랬더니 이것이 더욱 커져 완전히 길을 가로막아 길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헤라클레스가 도대체 이 물체가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하고 황당해하고 있을 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 말했다. “네가 건드린 물체는 논쟁과 불화의 정령 이란다. 건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양전하게 가만있지만, 맞서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은 점점 더 부풀어 올라 네 길을 막고 만단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당연히 토론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논쟁일 필요는 없다. 논쟁(論爭)은 말 그대로 다툼(爭)을 쓴다. 어떤 논제를 두고 싸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원수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주장만이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라고 갑론을박하면 결론은 없고 감정싸움만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특히 정치계를 보면 논쟁을 일삼는 자들이 많다. 근래에도 비밀비재하다. 이런 싸우는 것이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논쟁은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내 앞길을 막는 것이 되고 만다. 이제는 합리적인 토론 문화가 정착돼야 하겠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잠18:6).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

예수중심편집실



내 이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15장 24절)

::성경에세이::



귀를 기울이세요

## 내 분량이 있다

아들아!  
사람은 다 자기의 그릇이 있기 마련이란 다. 자기의 양이 있다는 말이다. 밤 양이 있고, 잠 양도 있고, 운동량도 있지. 아버지는 원래 잠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새벽까지 일하고도 서너 시간 자면 거뜬히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네 작은 아버지 이시대 목사가 나처럼 해본다고 서너 시간씩 잤던 적이 있단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 하니 어지럽고, 식욕도 없고, 일도 못하겠더라고 하기에 본래대로 하라고 했단다. 당연하지. 자기 잠 양을 못 채웠으니 오죽 했겠나? 밥도 제 양을 먹어야 든든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양이란단다. 아버지는 하루 4시간 기도해야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2시간, 그리고 밤에 2시간 기도를 꼭 하지. 물론 집회에 나가면 7시간 기도를 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단다.  
누구든 자기 기도의 양을 채워야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란다. 예수님도 당신의 기도 양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강론 하신 후, 저녁에 기도하신 거란다.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아 나선 것도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지.

아들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분량이란다. 누구나 믿음의 분량이 있단다.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 그런데 가끔 자기 믿음의 분량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믿음이 없단다니, 믿음이 그래서 되겠느냐 하니 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케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롬14:1~2).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단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고 말했다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라고 한 것이란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하는 자면 권위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6~8).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늘 분량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란다. 늘 어린아이만큼만 먹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듯, 믿음의 분량도 기도의 양도 늘어나야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말이다. 그래야 이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고 넉넉히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란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와 갈라져서 잃지 않게 하려 함이라”(엢4:13~15).

朋友

바다와 인접한 어느 도시의 자동차대리점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 정화를 신었고 생선 냄새가 풍기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대리점 직원이 그에게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자, 그는 자동차를 사러 왔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를 원하느냐는 직원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리점 안에 있는 차전부를 살 생각입니다.” 그러자 노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대리점 직원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난 당신 같은 늙은이와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소.” 그러고는 노인을 대리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노인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자동차대리점으로 들어갔고, 그 대리점 안에 있던 12대의 차를 전부 구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해안 도시의 유명한 원양어선 선주였고, 그가 신 12대의 차는 자신이 고용한 어부들에게 보상으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생각과 성품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b@naver.com



## 하나님은 저를 포대기에 싸서 키우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세 살 때 이혼하신 후 외할머니,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면서 월세방을 전전하다 주변 주민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임대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늘 가난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어깨에 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고, 또래의 아이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만져보지도 못하였고 가지고 싶어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분리하여 수용했을 때에도, 우등상을 빼앗길 때에도 제게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밝고 건강한 모범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세 살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나 일찍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꼭 싸매 키우사 폭력과 음주가 난무하는 척박한 주변 환경에서 어떤 위험도 겪지 않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육의 아버지가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어린 제게 하나님은 진정 저를 직접 양육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피아노학원을 다닐 수 없는 저에게 배우지 않고 들리는 대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하였고, 어떤 사고육도 받을 수 없는 저에게 집중력과 이해력을 허락하사 배움을 즐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매일 등교하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가 뿔이언정 꼬리 되지 말고, 귀감의 대상, 선망의 대상, 존망의 대상

이 되며 유학의 길이 열릴지이다."라고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고백하건대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볼모지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제게는 꿈이 있었던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회의 아픈 부분을 일찍이 경험하여 사람과 사회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재능과 열정이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장학재단을 세우는 꿈을 키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 재능으로 성공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기 결심했습니다. 이는 저를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2 여름에 비로소 작곡과 입시를 위해 처음으로 피아노학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고3 때 버스에 의해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의 대수술과 6개월의 입원, 1년의 깁스 착용 끝에 발의 재건은 실패했지만 저는 이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퇴원 후 단 2개월 동안의 입시준비에 역사하셔서 원하던 경희대학교 작곡과에 입학하도록 하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직면한 현실은 어릴 때보다 심했습니다. 돈 있는 선배들은 유학을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게 '현실에 꿈을 맞추지 말라'고 조언해주신 전도사님도 계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좌절해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기도 속에 심어졌던 유학의 꿈은 잊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작곡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론전공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자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한 학기가 지난 후 하나님께 들어 장학

금 제도가 있는 서울대학교 작곡과 이론전공 학부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서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억눌려 있던 자아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다 장학재단 설립 때를 대비해 복수전공으로 시작한 사회복지학에 크게 흥미가 생기는지라 2011년, 하나님께 학업을 듣지도 않고 사회복지로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이 아님을 6개월 만에 알고 접었습니다. 스웨덴 교환학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지만, 이후 저는 목표를 상실한 사람처럼 고뇌와 번민으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회를 돌보는 꿈을 꾸지만 가난한 가정형편은, 세상은 어서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업하라고 하는 것 같았고, 취업을 해야 한단 생각에 가난 취업박람회에서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외국계회사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지만, 꿈을 잃은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저희 집에 보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셔서 성탄절 자선음악회를 기획 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연주하고 후원금을 받았고, 또한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장학금들을 채워주셔서 2012년 1학기 스웨덴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월에 독일에서 있는 한인유학생, 이민자 수양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을 보았고, 또한 많은 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 속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제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잃었던 꿈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 유학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학기와 유학준비를 병행하는데, 얼마나 세심한 부분들까지 준비해놓으셨던지 많은 비용이 드는 준비과정에 저는 한 푼도 돈을 들이지 않고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2013년 2월 서울대학교를 단과대학 석차 1위로 졸업하였고, 불안한 마음에 지원했던 두 개의 해외인턴에도 합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2월에 여름 간 새벽기도 작정 후 뉴욕대학교(NYU)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턴을 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좋은 안과의를 만나게 하셔서 시력교정술을 무료로 받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국비 유학생에 합격시켜어 학비와 명에까지 선물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들어 후원금도 주셨습니다. 기도원 산상집회에서는 사고를 당한 발에 늘 있던 통증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을 통해 아무 연고도 없는 뉴욕에서 머물 저렴한 숙소와 도울 자들까지 예비하셨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으셨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가는 제 마음은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총회장 목사님과 교단 목사님들, 호산나 성가대, 서울 대학부, 문서선교팀 이하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인연 예수중심교회 김슬아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일사병과 열사병

요즘 '더위 먹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피로감에 짜증, 무기력, 식욕부진 등의 여러 증상이 몸에 나타날 때 하는 말들입니다. 이처럼 '더위 먹어 나타나는 병'의 대표적인 것이 일사병과 열사병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명백한 차이가 있으나 흔히 같은 질환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사병은 더운 공기와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우리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무력감, 현기증, 심한 두통을 동반합니다. 체온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열사병과 구분됩니다. 서늘한 곳을 찾아 환자를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하는 응급처치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과도하게 높은 기온에 오랜 시간 노출

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작업, 운동 등을 하면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체온 상태가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 이상 현상입니다. 따라서 열사병은 매우 무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주 발생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사병과 일사병이 이처럼 달라도 일사병을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사병과 달리 열사병은 뇌 시상하부에서 체온조절을 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돼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높은 체온에 의해 신체 조직이 파괴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 허약자, 노인, 심장병이나 당뇨병 등 질환자들이 열사병에 취약합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바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열사병이 나타나기 직전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시력

장애 등이 있습니다. 또 의식 장애와 함께 몸이 뜨겁고 건조해지며 붉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얇고 느려지며 혈압이 떨어집니다. 땀이 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열사병 증상이 보이면 우선 응급조치로 환자를 그늘로 옮겨 머리 쪽을 낮추고 찬 물수건으로 마사지하면서 수분을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증발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옷을 벗기고 분무기로 피부에 25도 정도의 물을 뿌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 기도유지와 호흡보조를 해주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폭염주의보 등이 발효됐을 때, 되도록이면 야외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세상이 아수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라

세상이 찾는 유일할 사람이 되라

백년 묵은 산삼이

사람을 먹는 법이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14절)